

# 住宅團地 設計計劃 ②

(永東地區 開發計劃에 참여하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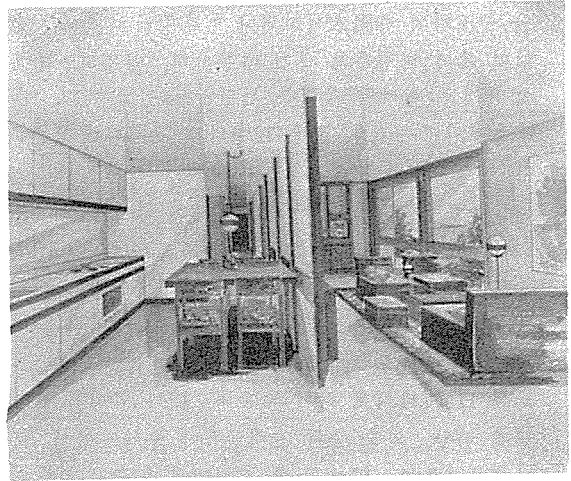
吳 忠 煥

## IV. 住宅의 基本形態와 面積配分

일반적으로 基本形態는 과거의 여건과 다른 今日에 와서는 그 형태를 좌우하는 여건이 변해지고 있다.

그 原因들은 주로 産業施設의 확장과 空間 利用 概念이며 또한 주위 환경의 복지시설들을 들 수 있겠으며, 또 다른 한가지는 前章에서 논한 要素들의 충족일 것이다.

이러한 두가지의 design요소들은 좋은 계획과 또는 더 좋은 전망을 가져오게 할 것으로 보고 다루어져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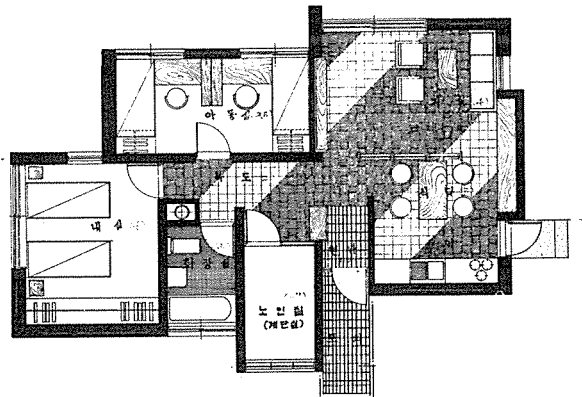
### 4-1. 좋은 계획이란?

우리는 적어도 일년에 수많은 住宅들이 이 고장에 세워지고 있는 사실들을 잘 알고 있으며 또한 보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생활에 적응이 되든 안되든 간에 그것은 문제시 하지 않으려는 것 같다. 적어도 본인의 생각으로 아마도 자기의 집을 갖고 싶은 心理的인 욕구가 더 비중이 크게 작용한 결과가 아닌가 본다.

그러나 이길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곳에 生命을 불어 일으킬 수 있는 責任을 가져야 하리라고 보며 이러한 것은 좀더 나아가서 더 좋은 사회에 이바지하는 가장 큰 요소로 作用되리라 믿는다.

일반적으로 주거의 空間論은 다능다감하며 그 분석 정의도 세우기 힘들고 또 곤란하기 짝이 없지만 그나름대로 가장 主가 되는 몇 가지 공통된 要



素들은 存在하고 있다.

주로 생활공간의 분석은 sleeping area (bed-rooms & baths)와 living area (living room, family room, dining room)와 work area (kitchen or control area)가 되겠고 이러한 構成을 유기적으로 대응시키는 hallways 와 circulation area 를 들수있겠다.

上記의 요소들을 어떠한 形態로 配置 分配 하느냐 하는 것은 개개인의 자유이지만 일반적으로 그 형태성에는 2가지 方法이 있겠다. 그 첫번째 방법은 平面型態이고 또 하나는 立体的인 形態가 될 것이다.

여기서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볼 때 우리는 現在지워지고 있는 形態들이 과연 앞으로 수년 혹은 수십년이 흐른 다음에 사용 價值가 있겠는가의 연구 분석이며 이러한 조건을 어떠한 방법으로 추정하여 合理化시키느냐 하는 문제들일 것이다. 생활기능의 충족과 경제성 (economic function)의 충족이 고려점토 되어야 하고 이것들의 가치성 역시 점토 되어야 하겠다. 국민의 GNP는 시간이 흐르면 증가하고 증가 후의 국민은 그때의 충족된 要素들을 다시 찾으려 해매이게 되는데,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vision 을 주는 방법의 계획은 아마도 한국의 입장은 더욱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를 것이다.

이러한 조건을 해결하는 方法으로 本人은 다음과 같은 것을 제안하고 싶다.

### ① 増築을 고려한 平面型態

이러한 형태는 가족의 단위가 결정되어야 하겠으며 증축의 방법은 平面型이든 立体型이든 그형태가 문제 되지 않으며 大地의 여건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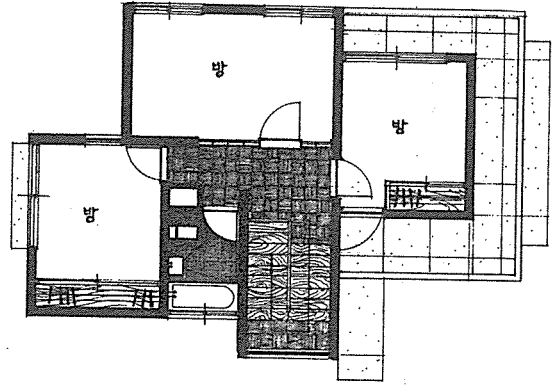
이것은 매지의 밀도 (density)와 연관을 갖기때문이다.

### ② 可變性있는 室內空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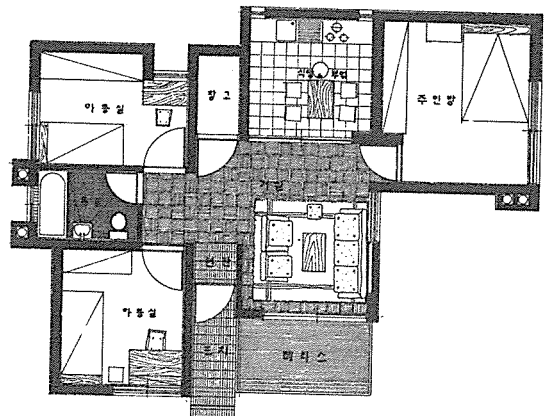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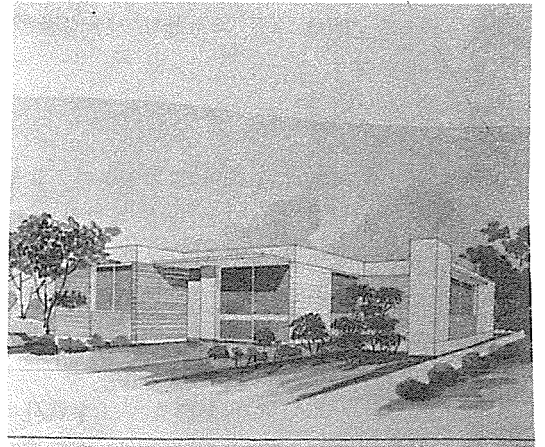
주어진 形態 (가장 合理的인 平面形)를 새로운 形態로 바꿀 수 있는 平面型態를 말한다.

보통 一般的인 平面들은 室内的 空間 분할을 정지시키기 쉽고 또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물론 다음장에서 논하기로 하겠지만 構造的 문제가 뒤쫓기는 하나 이러한 조건을 기술적으로 처



2층 예정 평면도



리하는 方法과 또 한가지 方法은 새로운 형태의구 조개발로 해결하는 方法들이겠다.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조적조의 建物群들은 이러한 공간의 분할을 어느정도 억압하고 있으며 bearing wall system의 構造들은 이러한 난제들의 해결을 손쉽게 해결하여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필연코 우리 사회에 주어진 공업품의 보급은 이러한 장해를 해결하는 완벽한 재료로 개발되어 있지 못하기는 하나 현재 가공할 수 있는 조건을 볼 때 가능하리라 보며 또한 必要時에는 이 길에 종사하는 누군가가 企業人들에게 必要性的인 억압을 타당성 있게 제시하기도 하여야 하겠다.

本人이 생각하는 가변성은 비단 室内的인 확장만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며 空間의 연결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요컨대 행동의 자유성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多次元的인 요구 조건들의 자유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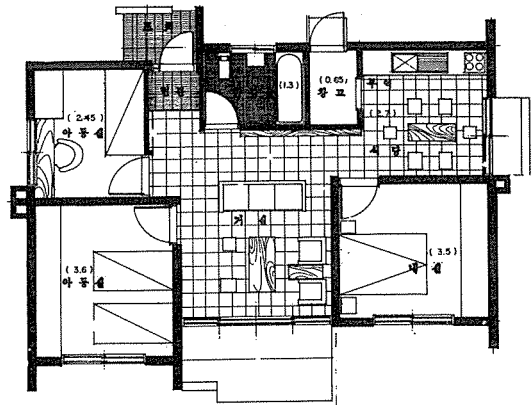
### ③ 平面的 모양

일정한 기능을 위하여 조그마한 기능들이 합쳐져 전체의 平面形態를 확정짓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 전체적인 形態가 어떠한 형태든간에 하나의 모양을 갖추게 되는데 이러한 形態들은 결국 外部空間의 形態를 造成하는 커다란 소재로 등장하고는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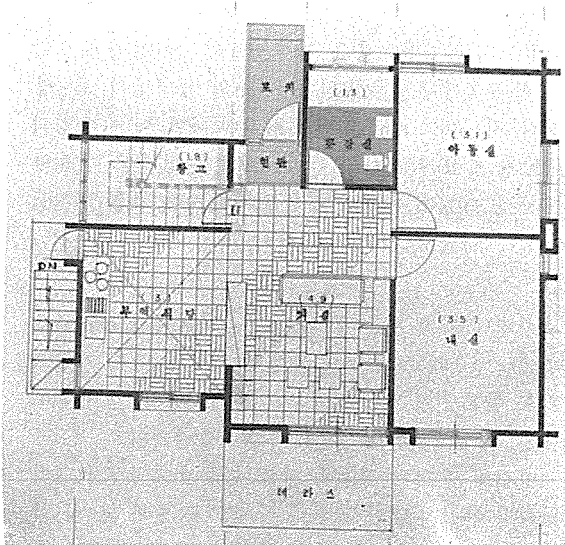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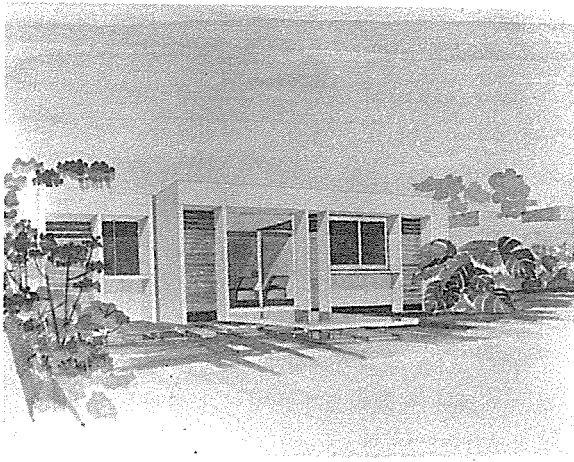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단순화된 이런 形態들은 工事費하고도 연결지어지며 또한 새로운 문제들에 억압당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요소는 計劃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제한을 가하게 하는 커다란 要素中的인 하나로 등장하고는 한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고 주위에서 보고있는 角型的인 形態 (rectangular plan)들은 긴 역사를 이어받고 現在에 存在하고 있는데 이러한 形態들의 구성을 재편성하는 것만이 가장 理想的인 형태는 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rectangular plan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형태가 습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다. 内部的인 機能이 필요로 하는 형태에서 가변성 있게 형성된 형태는 가장 적합한 형태들이며 이러한 형태는 기능분석의 가치성에 따라 여러 형태로 변모하고는 할 것이다. 본인이 경험한 것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군소의 적은 住宅들은 면적의 결핍에서 오는 비중이 상당히



크므로 가능한 平面的인 연결을 주고있는 空間들의 space를 최소로 줄이게 되는데 이러한 형태는 外部의 벽량의 증가를 가지고 올 뿐더러 열의 손실량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요소는 工事費의 증가를 초래하는 요소가 되기는 하는데 이러한 조건의 해결을 위한 平面形態들은 궁극에 가서 변화없는 四角型的인 平面으로 확정되고는 한다. 즉 요철이 없는 平面型이 되고 마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는 内部的인 기능에 무리한 조건을 항상 내포하게 되며 우리 주위에 세워진 주택군들의 예를 비쳐 보아도 더 설명의 여지가 없으리라 믿는다.

아마도 본인이 생각컨대 住宅의 室内空間의 기능들은 정착할 수 있는 요소 보다는 정착이 더욱 불가능하다는 요소가 비중이 높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4-2 바람직한 面積 配分

일반적으로 面積配分의 조건을 추정하기란 그리 쉬운 作業은 아니지만 가능한 앞으로의 계획성을 제시하는 요소로서는 분석 평가가 필요하리라 믿는다.

이러한 要素의 分析評價나 規準은 자기나름대로 체계있는 정의를 내리지 않으면 안될 것이고 外國의 예만을 가지고도 적지않은 혼선을 가지고 오기 쉽다고 생각된다.

사실 우리 주위의 주거양식은 단편적으로 검토하여보면 주체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社會에서 오는 조건과 在來的인 습성에서 오는 조건의 혼란이 어려움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예를 들자면 座式生活의 기능을 가진 주거에서 立式生活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立式生活의 기능속에서 座式生活을 하고 있는 형태들이다.

要求하는 條件의 質들은 바람직한 面積配分의 主要素로 등장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러한 조건들은 가장 적절하고도 유효한 面積配分의 質적인 존재로 作用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속에 건축가 자신들이 찾아야 하는 方法中的 하나가 앞으로의 추세이고 可變性 있는 요소를 추정하는 方法外에 다른 方法은 없으리라 믿으며 또한 연구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번 永東地區 단독 주택의 경우 在來式과 立式 양식의 평면형이 구상된 중요한 요소는 이러한 것이며 이것들의 연구가치성 보다는 方向性을 제시하는 것으로도 다행하였다고 보겠다. 그럼 바람직한 面積配分은 어떠한 것들을 들수 있을까?

여기서는 立式生活에 근거를 갖기로 하고 몇가지 예를 들어 보면

- 4-2-1. 주방과 식당을 접한 평면형태.
- 4-2-2. 식당과 거실을 접한 평면형태.
- 4-2-3. 거실과 부부실을 확장할 수 있는 평면형태.
- 4-2-4. 外部의 空間을 거실의 공간으로 흡수할 수 있는 형태.
- 4-2-5. 外部의 空間을 식당의 공간으로 흡수할 수 있는 형태.
- 4-2-6. 家族室과 아동군의 면적을 복합적이고 유기적인 형태로 바꿀 수 있는 형태.
- 4-2-7. laundry, service utility core 의 군립 형태.
- 4-2-8. 主機能을 가진 室과 아동들의 管理가 용이하게 配分된 형태.

이 외에도 여러가지로 더분류할 수 있겠으나 몇 가지 형태로 대략 간추려 보았다.

그리고 앞으로의 추세로 등장할 수 있는 것은 approach의 配分이 중요하리라 믿으며 이것은 外部와 内部의 空間을 연결시키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carports와 garages의 문제이겠다.

## V. 構成과 質感과 色彩

일반적으로 構造의인 構成은 材料의 성질과 平面機能에서부터 정하여지는 것이 보통이며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적조의 경우를 생각하여 보기로 하겠다.

조적조의 유래는 그 기원이 상당히 오래되었고 보면 그 사용도의 장단점도 많이 알려지고 있는 재료이며 또한 材料의 종류도 여러 方面에서 개발되었고 그 형태도 여러 方法으로 연구생산 되고는했다. 그러나 조적조의 가장 단점인 靑력에 약하다는점과 壓力에 의한 좌굴을 막는 方法은 그렇게 완고한 것으로 개발된 것은 없는 것 같다.

이러한 단점들은 결국 벽량의 확보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러한 要素는 결국 자유스러운 平面의 제압을 가하는 요소가 되고는 한다. 물론 이러한 要素들을 기술적인 方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方法이기는 하나 결국은 자유스럽지 못한데는 그 재료만이 갖는 특징이 있겠다.

이러한 要素들을 Design의 主材로 使用하여 형성하고 성장시키는 형태들을 우리는 자연적인 성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성장은 가장 자연스럽고 우아하며 그 생명력 역시 긴 시간을 갖는다.

그러나 都市地의 형태에서 요구하는 욕구성이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는 감안 안할수가 없겠고 또한 재삼 고려의 여지를 제시하고는 한다.

일반적으로 自然的인 材料가 갖는 質感은 그 pattern 자체가 강한데 국부적인 어떠한 pattern은 材料의 texture와 아름다운 調和를 형성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그 재료가 갖는 생명감이며 이것이 사용되는 곳은 주위의 어떠한 요소와 contact하는 시간과 이해시키는 시간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영동지구의 경우 本人은 이러한 생각을 했었다.

都市가 새로 성장하는 곳에 그곳도 아주 새로운 都市가 아닌 개발의 지역에 과연 어떠한 수법으로 탄생되고 연속되어 가야 하는것을 말이다.

우리는 一般的으로 현재 이루어져가고 성장되어 가는 형태들을...또한 그속에서 느끼는 우리들의 기분을 생각하여 보겠다.

都市는 복잡하고 다기능 하며 피로에 젖은 人間들의 안식처는 되지 못하며 人間으로 하여금 이해시키려는 힘을 더 요구하고 있는 상태들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都市의 人間은 都市를 이해하고 아량을 베풀지 못하면 견디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는 말이다.

근소의 빌딩들, 혹은 건축재료의 전시장과 같은 형태들이다. 現代의 Design의 생명중의 큰 생명의 하나가 simple한 要素인데 과연 이 단순성의 比重을 제삼 직감하게 한다. 새로운 형태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정돈하는 과정은 필연코 단순화시키는 과정이 되겠다.

시가지에 세워진 콘크리트 제물치장(exposed concrete finished)들은 복잡한 과정을 더욱 가중시키는 要素中の 하나이며 다양한 color의 형태들도 같은 형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재료나 질감 혹은 색채의 변화를 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을 주게 되며 가장 basic한 方向으로 이끌고 간다.

우리가 사용하는 色彩는 그 색도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색상을 이루고 있기는 하나 이것이 적절한 調和를 이루지 못했을때 오히려 복잡하여지며 피로의 산적만을 초래케 된다. 또 色의 調和는 분위기 형성에는 좋은 것이 될 수 있으나 이것은 결국 그 生命力이 강하지는 못한 것 같다. 더군다나 近代文明의 소산인 합성수지 계통의 材料들이 주는 色彩들은 可變性의 여지가 곤란하여 지고는 하는데 이러한 조건들은 사용하는 자로 하여금 더욱 생각을 요구하는 方向으로 이끌고 가고 있다.

前章에서 本人이 제시 했듯이 團地의 형태속에서 그 構成要素가 一家에 있는 것보다는 團地 전체에 있다고 제시하였거니와 이러한 요구는 texture

와 color의 사용도 제압하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 이러한 복합적인 要素들의 적절한 결합은 결국 그리 쉬운 것만은 아니겠다.

근래에 와서 우리는 주위에 사용된 색채에서 흑색과 백색조의 色들을 흔히 보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오히려 다른 색상보다 단순성이 있는 것 같이 보여지고 또한 정돈된 것과 같이 생각이 들고는 한다.

이러한 생각은 결국 자의에 의한 것 보담 현대라는 社會性이 가져다준 것들이 아닌가 한다.

## VI. 결론

하나의 團地나 혹은 建物에 있어서 분석 검토되어야 할 것은 상당히 많은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要素들을 一方向으로 단언을 하는 것은 현명하지는 못하리라 생각되기는 하나 現在 우리의 時點에서 검토할 수 있고 채택될 수 있는 方法이 있다면 이러한 것에 대하여는 裁量 검토를 하여야 되리라 믿는다. 더군다나 개개인의 건물들은 일 개인의 충족으로 끝날 수 있으나 永東地區의 경우와 같은 곳은 주문자와 시행청간의 이해할 수 있는 충족들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더욱 필요한 것이다. 좀더 多次元에서 머무르고 이러한 次元의 좋은 結果를 맺기 위하여 서로가 협조하여야 되는데 우리의 입장들은 그렇지 못하고 보면 난점들의 애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제공자와 사용자의 연결속에서 서로의 利益과 合理的인 생태들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건축가는 존재하고 연구하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서울시가 1次, 2次에 걸쳐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또 3次에 응모를 성공적으로 끝냈기는 하였으나 적어도 머무르지 말고 연구 분석이 있었으면 하는 本人의 생각이고 보면 아쉬운 부분들의 생각이 적지아니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겠다.

물론 工事의 完工이 되기까지는 계속 검토되고 연구되어가면서 진행되어 갈 것이다.

入住者들의 앙케트 분석이 결국은 관공서에 대한 공신력에 있듯이 서울市로서는 先導的인 입장에 서서 이끌어가야 할 것이고 이러한 분석의 발표는 建築의 길을 높은 次元으로 발전시키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하리라 믿는다.

本人이 원고에 충실을 기하지 못하는데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오며 앞으로 많은 지상을 통하여 더욱 자세하게 논하고 분석하기로 하겠다. 《끝》

### 참고문헌 :

1. 건축학 편람(일본건축학회편)
2. SITE PLANNING. (M. I. T.)
3. 건축심리입문(建築心理入門) (彰國社刊, 小林重順著)
4. 건축의 예술성(彰國社刊, 中野 勉)
5. BUILDERS, HOMES FOR BETTER LIVING  
A. Quincy Jones Frederic K. E. Emmons : Reinhold Publishing Corporation N. Y.
6. 환경 조절을 고려한 도시 및 지역개발 계획에 관한 연구(과학기술처)
7. 건축계획의 연구 (동경대학 교수 공학박사 吉武泰水)
8. 건축계획, 설계 Data Book
9. BUILDING PLANNING and DESIGN STANDARDS; The Lute Harold R. Sleeper, FAIA(John Wiley & Sons, INC., N. Y.)